

##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9

#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의 46번째 질주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3·1절의 정신을 계승하고 건강을 다지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을 소개한다.

## 1명당 2원, 지역사랑기금 출연 ‘情나눔 참이슬’ 화합의 질주

### ■ (주) 진로 광주지점

“패기의 광주! 변화의 광주! 참이슬 13만!”

제46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주)진로 광주지점 직원들의 출전 캐치프레이즈다.

(주)진로 광주지점 직원들은 광주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축제를 즐기기에 이번 대회에 처녀 출전한다. 특히 새봄

### 광주시민들과 즐거운 레이스

을 여는 3·1절 마라톤대회를 전 직원과 진로 참나눔 참이슬 봉사단원의 화합과 친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주)진로 광주지점은 참이슬 ‘情 지역 사랑 캠페인’ 일환으로 2010년 1월부터 전남 지역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1명당 2원씩 기금을 출연, 조성 목표액 2억원 달성 시 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조성된 사랑기금 6940만2180원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우리지역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학생 33명과 직원으로 구성된 ‘진로 참나눔 참이슬 봉사단’은 2010년 조직매 현재 3기가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2회씩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情 나눔 지역사랑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진로 광주지점은 올 광주·전남지역

에서 참이슬 13만상자 판매를 목표로 신바람을 뽐내고 있다.

백관홍(53) 진로 호남본부장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전직

### 백관홍 본부장 선전 다짐

원들이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항상 함께 호흡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힘찬 출사표를 던졌다. 백 본부장은 매일 만보이상 걷기로 체력관리를 하고 있어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레이스를 자신하고 있다.

성동욱(47) 광주지점 지점장은 조기축구를 통해 단련된 체력으로 5km 입상을 노리고 있다. 특히 성 지점장은 거대한 관리 등으로 소홀해진 체력을 다시 점검 하는 계



(주)진로 광주지점 직원들이 3·1절 마라톤대회를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각오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가 돼 가족의 적극적 지원까지 받아 요즘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박종호(45)영업2과 트장 역시 조기축구에서 단련된 하체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전직원이 업무특성(주류업)상 음주가 생활화 돼 있기 때문에 야구·등산 등 1인 1

동호회 활동으로 꾸준한 체력을 관리하고 있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완주를 자신하고 있다. 참이슬 봉사단 대학생들은 직원들에게 젊은 패기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스타트 총성을 기다리고 있다.

성동욱 지점장은 “광주일보 3·1절 마라

톤대회는 전직원들과 함께 새봄을 여는 새로운 화합과 친목의 장이 될 것 같다”며 “더불어 항상 지역민과 함께 하는 (주)진로가 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는 마음으로 결승타이를 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엔씨소프트 “초대 사령탑은 화합형 리더”

# 창원시민은 “선동열” 원한다

### 설문 조사 1위... ‘국민 감독’ 김인식·로이스터·이순철 등 거론

창원시를 연고로 한 프로야구 ‘제9구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엔씨소프트가 내년 퓨처스리그 참가와 이르면 2013년 1군 리그 진입을 위해 선수단 및 프런트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대외협력 홍보담당 상무는 9일 “신규 구단 가입 절차가 남아 있지만 선수단 및 프런트 구성 방안을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창원시와 협의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단장과

감독 선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제9구단의 구단주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창업주 대표이사야 말한다. 엔씨소프트는 3월 중에 아홉 번째 팀으로 승인받으면 구단 설립을 책임질 단장을 우선 선임할 계획이다. 다음에는 초대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인선과 선수 영입 작업에 들어간다.

올해 2군 리그인 퓨처스리그가 4월5일 개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가는 불가능한 상태. 하지만 오는 9월 신인 드래프트 때 두

명을 우선 지명하고 8개 구단에서 보호선수 외 1명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대 감독 인선을 늦출 수 없다.

제9구단 초대 사령탑 후보로는 김인식(64) 전 한화 감독과 선동열(48) 전 삼성 감독, 양상문(50)·로이스터(59) 전 롯데 감독 등이 거론된다.

김인식 전 감독은 1990년 쌍방울의 초대 감독으로 2군을 만들었고 이듬해 1군 리그에 참가해 52승71패3무(승률 0.425)를 기록, 신생팀을 안착시킨 경향이 있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과 2009년



〈선동열〉 〈김인식〉 〈로이스터〉 〈양상문〉 〈이순철〉

WBC 준우승을 이끌어 ‘국민 감독’으로 불렸고 1995년과 2001년 두산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지휘했다.

‘국민급 투수’로 이름을 날렸던 선동열 전 감독은 6년간 삼성 사령탑으로 활동하며 두 차례 우승과 한 차례 준우승 등 좋은 성적을 냈다. 최근 창원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초대 감독 후보 1위로 꼽혔다.

또 2004년부터 2년 간 롯데 감독을 맡았던 양상문 전 감독과 지난해까지 롯데를 3년 연속 4강으로 이끌었던 로이스터 전 감독이 후보 물망에 올라 있다.

이밖에 김재박(57) 전 LG 감독과 LG 사령탑을 지냈던 이순철(51) MBC 스포츠클러스 해설위원, 최동원(53) 전 한화 코치도 거론되고 있다.

이재성 상무는 “1군 리그 진입 시기가 능력 있는 감독 섭외의 절실하다. 1군 리그 참가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분야라면 좋겠지만 자격을 갖춘 인물이 선뜻 나설지는 의문”이라면서 “8개 구단에서 오는 선수들로 ‘외인부대’를 꾸리는 만큼 하나의 팀 색깔로 만들 수 있는 화합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자격조건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 ■ 엔씨 선수 공급은?

## 기존 8개 구단서

## 3명씩 받을수도

### KBO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

엔씨소프트가 기존 8개 구단 별로 최대 3명의 선수를 지명 트레이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내달 8일의 실행위원회(예전 단장모임)를 앞두고 엔씨소프트 선수 수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KBO는 과거 빙그레(현 한화·1986년), 쌍방울(1991년), SK(2000년), 히어로즈(2008년) 등 4차례의 창단 사례를 기초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 야구규약은 신생 구단이 창단하면 각

구단이 보호선수 20명을 빼고 1명씩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KBO는 이 정도로는 신생 구단이 선수단을 제대로 꾸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강구 중이다.

KBO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선수 지원책은 엔씨소프트가 1군에 뛰어든 첫해 승률 0.300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KBO는 종전의 창단 4팀이 창단 후 5년간 거둔 승률을 자세히 검토했고, 승률 0.300을 적정선으로 판단한 것이다.

KBO 고위관계자는 “엔씨소프트가 구단

별로 보호선수 20명을 뺀 1명, 보호선수 25명을 뺀 1명 등 총 2명을 현금을 주고 사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8개 구단이 2명씩만 보내도 16명이 엔씨소프트 유니폼을 입게 된다.

KBO는 여기에 엔씨소프트가 1군에 들어오기 전인 2012년이나 2013년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1~4위 팀에서 선수를 한 명씩 더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엔씨소프트는 기존 구단에서 선수

20명을 수혈받고 야구규약에 따라 우선 지명할 신인 2명, 외국인선수 4명 등 총 26명으로 초기 선수단을 꾸릴 수 있다.

KBO는 또 신인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이후의 지명 선수를 대상으로 엔씨소프트가 다른 구단에 앞서 10명 정도를 먼저 추려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8개 구단이 KBO의 선수 수급 기준을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수다. 기존 구단은 전력 손실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내달 실행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각 구단의 ‘주관할 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기록지 읽는법 배우러 오세요

### KBO 25일부터 강습회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야구팬을 대상으로 2011 프로야구 기록강습회를 개최한다.

프로야구 공식 기록법의 이해와 보급을 위해 열리는 이번 강습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KBO 공식기록원이 직접 공식 기록법과 관련 기록규칙을 강의한다.

수강자에게는 ‘공식기록지’와 ‘야구기록 가이드북’이 제공된다. 또 강습회 종료일인 27일 기록 실기 테스트를 거쳐 성적 우수자에게는 차기년도 전문 기록원 과정 수강 기회가 주어진다.

수강 희망자는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6층 기록위원회 접수처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KBO 홈페이지(http://www.koreabaseball.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강 접수비는 1만 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에는 금수장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것입니다

내집같은 편안함

부담없습니다!  
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총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 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Free Wifi, 비즈니스 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따뜻하고 아늑한객실과 24시간 룸서비스와 여행에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밤중 바늘로 꼬매어 정성스레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는 저희의 자랑입니다.

객실요금  
4만원  
 부터

**금수장관광호텔**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